

보살의 길

2006년 가을호 제27호



10월 4일 송편빚기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

고 병 득 (침·뜸자원봉사자)

자원봉사는 매력을 드리는 즐거움이라고 누가 말한 적이 있다.

혜명양로원에서 침 봉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을 훌쩍 넘겼다. 처음 봉사를 하기 위해 침통을 들고 양로원으로 들어 설 때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즐거움으로 묘사할 처지는 아니었다.

학교를 졸업할 즈음이었기에, 임상실습도 해야 하고 국제의료봉사단 가입을 위해 일정 봉사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기에 발걸음은 그리 편안하지 않은 않았다.


이제 봉사시간이 200여 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양로원으로부터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던 할머니들의 모습들이 뇌리를 짝 메운다. 지금은 이런 환한 모습에 이끌려 양로원을 찾는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양로원에 들어서면, 두 손을 합장하며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는 할머니, 침을 맞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손수 커피를 타주는 할머니, 침 값이라며 사탕을 입에 넣어주는 할머니가 계신다. 소박한 분들의 작은 정성이 나를 매주 감동시킨다. 나는 이런 즐거운 감동 때문에 침 봉사를 그칠 수 없다. 드리는 즐거움,

이제 이 글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양로원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올린다. 나의 침술에 정성이 가득 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야 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때문이다.

침을 맞는 할머니들의 대부분이 신장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좌골신경통 내지는 슬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오는 병증이라 쉬이 나을 수는 없지만, 며칠은 통증이 조금은 덜 한 것 같다는 말에 나의 침 끝에 힘이 솟구친다.

이런 노인성 병증은 2~3일에 한번씩 침 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드리면서 도리어 얻는 즐거운 감동, 나는 이 즐거움을 자원봉사의 매력이라 생각한다. 



작은 나눔이 큰 행복입니다




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 자원봉사 대장 김 운 봉

지난 45년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발전
을 위하여 앞장서 왔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이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제 역할
을 다 하는 리딩뱅크가 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
사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2월 기업은행 남부지역본
부는 관내에 소속된 직원 중 54명의 직원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마음을 모아 『사랑나눔 봉사단』
이라는 자원봉사단을 발대하였습니다. 각 지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성된 자원봉사대는 관내에
소재한 양로원, 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정신
지체인들의 시설등에 매월 2째주 토요일에 방문하여
각 시설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서투른 목욕봉사로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송구하기도 하였고 산더미처럼 쌓인
세탁물을 보면서 모두들 놀라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이젠 어르신들 등을 밀어주면서 이런저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아무리 많은 세탁물이 쌓
여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입는다는 마음으로 즐거
운 마음으로 세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면 기다린 듯 기쁘게 맞아주시
고 당신들의 간식인 빵과 과자를 건네주시면서 저
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할머니를 보면 마음 한구석
이 몽클해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뿌듯함과 행복을 느끼고는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직원들도 봉사활동에 관심
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어린자녀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늘어나 어른을 공
경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마음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값진 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봉사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봉사자들에 비하면 아
직도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하여 진
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
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따듯한 마음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의 진정
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부족한 이웃에
게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마음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소
외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사랑이 가
득한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봉사
대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남부지역본부 박종규 본부장님과 직
원분들, 또한 주말을 반납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
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봉사대원 여러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혜명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금강정사 학생회 마애불 송 예 술

어느 덧 혜명양로원으로 봉사를 다닌지도 2년 가까이 되었다. 봉사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마음만 앞서서는 이도저도 안되고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며 꾸준히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스님께서 절에 다니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와 혜명양로원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생각에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이라고는 해도 쉬는 날중에 한 번인 셈이니까 그리 시간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봉사 가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꾸준히 다니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고 이제 넷째주 노는 토요일은 '봉사가는 날'이라는 개념이 딱 자리잡게 되었다.

처음 봉사를 가서 우리는 복지사님께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로원의 이미지는 사실은 요양원에 대한 것이 더 가깝다고 하셨다. 처음 가본 양로원은 우리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 깨끗한 실내, 밝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우리가 가서 할 일은 그곳을 청소하거나 우편물을 붙이거나 혼자서는 씻기 힘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목욕 시켜드리는 일이었다. 봉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목욕

인 것 같다.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만 제일 뿌듯한 일이다. 처음엔 누군가를 씻겨드린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씻고 나서 개운해하시는 할머니들을 볼 때 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면 옷도 다 젖어있고 땀도 많이 나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지만 기분만큼은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다.

나는 주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을 했지만 가끔 청소를 할 때도 있었다. 내가 청소를 할 때의 일이었다. 할머니방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오려는데 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옷장에 넣어두신 고추장통 안에 있는 사탕을 한주먹 쥐어주셨다. 그 때 참 기뻐다. 사탕을 주머니 속에 넣고 하나씩 먹으며 방마다 청소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었다. 분명 이 곳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들의 편견 속에 존재하는 그런 안쓰럽고 불쌍한 이미지의 분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외로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학생들을 애써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얼마나 더 봉사를 다닐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분명 내 삶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기억과 마음이 오래도록 유지되어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32

혜명한마당



| 뱃돌체조 |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최하여 삼개월간 뱃돌체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진행 된 체조는 어른들과에 쉽게 재미있게 이루어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생일잔치 |

7월 생신잔치는 춤소리한마당에서 오셔서 생일잔치를 해주셨습니다. 상차림에서 공연까지 풍성한 생신잔치마당을 마련해주셔서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춤소리한마당 공연팀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악기배우기 |

7월25일민속박물관에서 방문프로그램을 해주셨습니다. 오전엔 우리악기배우기와 오후엔 소고만들기로 이루어진 일정은 양로원이 하루 종일 색다른 즐거움으로 넘쳤습니다. 십진 않을 텐데 노인시설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는 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

8월27일 국립국악악단에서 어른들에게 흥겨운 국악공연을 해주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양한 우리악기를 연주하는 공연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회자의 구수한 입담과 함께 이루어진 공연시간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 충천박물관 관람 |

9월22일 광명에 있는 이익현선생 박물관에 양로원어른 12명이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호젓하게 차려놓은 박물관에서 옛것들을 다시 한번 보며 답소도 나누고 산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이런 곳이 많아 자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 송편빚기 |

10월4일 추석을 맞아 양로원어른들이 송편을 빚었습니다. 둘러 앉아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만든 송편은 할아버지께서 산에서 따온 솔잎으로 찌서 맛있게 간식으로 나눠 드셨습니다. 늘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 추석빔구입 |

10월4일 추석을 맞아 어른들에게 추석빔을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예쁜 추석빔을 입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추석차례 |

10월6일 추석날 아침 6시 양로원의 어른들도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놓고 법당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 가을나들이 |

10월25일 하반기 나들이를 이천 미란다 온천으로 다녀왔습니다. 온천을 하고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목아 불교박물관 관람으로 이루어진 일정은 이천의 황금빛 벼 들과 가을의 고즈넉한 푸른하늘이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혜명동정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 28명 / 여: 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대상

■ 무료입소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현재 입소인원 (9월 30일 현재)

- 총 58명
- 할아버지 : 27명
- 할머니 : 31명

◎ 직원 현황

- 총 16명
-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 도선사 산하 시설 체육대회

도선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23개 시설이 9월 30일 평택에 있는 청담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2개팀으로 나눠 경기를 했으며 양로원이 속해 있던 지혜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체육대회는 모든 시설이 함께 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 한명숙총리 방문

10월 2일 한명숙 총리께서 혜명복지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 혜명복지원을 찾으신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 노인복지 시설평가

9월 26일 노인복지 시설평가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있는 평가는 양로원의 모든 업무를 다시 한번 진단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가단과 평가를 준비한 우리직원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2006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 김향신, 임진빈, 주금순, 박은주(밀그림색칠), 문덕녀(대림미용실), 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 무용반, 임호순 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박경희, 민귀남(불자연), 윤순재(사랑의모임 국악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고병득, 조규용, 김병호(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 고다현(물리치료), 대한적십자사 시흥동회원님들, 임지현(건강체조), 백산초등학교 6학년, 백련사 신도님들, 박성은(미술활동), 천종임(민요), 기업은행 강서지역 직원들, 국민건강보험공단, GS건설, 김하늘(차밍댄스), SK네트웍, 묵향법사, 혜명회(찬불가봉사팀), 국민은행직원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 품 후 원

푸드뱅크, 기업은행, 반야회, 춤소리한마당, sk네트웍스, 서서울과학고, 던킨도너츠, 인천보살님, 민속박물관, 백년사, 구충수, 혜명보육원, 유상현, 세종관현악단, 보명사, 협진 3호, 생활체육협의회 이택종, GS건설

지 로 후 원

안정희 30,000	백승풍 30,000	문금자 50,000	박영옥 20,000	한독병원 60,000	구희근 20,000
민병찬 60,000	서현종 30,000	장영애 30,000	한진택 100,000	윤재순 60,000	이애자 20,000
구봉순 20,000	석혜영 20,000	이정호 10,000	구충수 150,000	임옥수 150,000	구희관 10,000
김동섭 300,000	한진택 100,000	조관우 10,000	이종임 60,000		

현 금 후 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90,000	서울시 공동모금회 800,000	영등포교도소 나승두 300,000		
한국까르푸 128,000	대검찰청 임승관 1,000,000	기획예산처 진영곤 500,000		
대림라이온스 900,000	박성수 120,000	최형기 40,000	박혜정 50,000	
증권선물거래소 300,000	권기상 15,000	국영호 600,000	이복자 20,000	
청담어린이집 100,000	금천경찰서 400,000	한태규 100,000	방주석 200,000	
양보금 20,000	강영애 100,000	강윤호 200,000	금천구청 590,000	서울시청 590,000

♥♥♥ 늘 양로원을 잊지 않고 정성껏 후원금을 내주시는 후원자님, 어르신들의 생필품, 간식, 부식등 후원품을 가져다 주시는 후원자님, 또 하루 일과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자원봉사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두루 건강하고 화목하시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 ▶ 후원내용 : 현 금 후 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 품 후 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 품 후 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빵 등)
가 전 후 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연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